



당신의 시대, 이제는 통일이다!



이슈 in 통일

최근 한 달간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주요 소식 및 이슈 모음



누아씨(NUAC)가 간다

제18기 민주평동 지역회의 출범식



당신이 통일주인공

군충시료 도소매업 운영하는 김민기 대표



통일돋보기

북한 잦은 핵실험 등으로 대기오염 '심각'



통일 웹툰  
행복이의 첫 유학, 남북 홈스테이 연수



하늘을 비추는 강물  
가을을 노니는 바람  
충북 단양



북한 별미  
황해도식 호박만둣국



[이벤트②] 퀴즈 이벤트 제 18기 축하 영상 메시지 캡처



민주평통365일  
NUAC News



앱 설치하기



지난호 보기



웹진 다운로드



구독 신청



구독 해지



웹진개선의견

# 제18기 민주평통 출범의 의미와 과제

라미경(순천향대학교 연구교수)



▲ 김덕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이 지난 28일 열린 제18기 부의장 협의회장 합동워크숍에서 '국민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9월 1일 김덕룡 수석부의장 체제로 항해를 시작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취임식에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국민통합이야말로 통일 준비의 출발점이며 통일과 관련한 국민헌장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민주평통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정신과 민주평통법에 기초한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초당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남북관계의 정상화는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헌법정신에 따라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고,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0.4 남북정상선언이 남북관계 정상화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남북관계에 많은 난제들이 주어졌다. 미중의 패권구도 속에서 북한의 6차 핵실험과 ICBM, SLBM, IRBM 등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 핵 미사일 문제는 거의 정점에 이르렀고, 국내외적으로도 사드배치에 대한 중국과의 외교적 갈등과 미국 내에서 커지는 대북 군사공격에 대한 경고음 등 다양한 외교 및 안보 현안과 맞닥뜨리고 있다.

한반도 평화는 우리의 생존전략이자 성장과 번영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에 제18기 민주평통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을 활동의 목표로 삼고 △국민중심의 열린 정책건의 △소통으로 공감하는 통일활동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적극적인 평화 공공외교를 4대 활동방향으로 선정하여 국민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다양한 평화통일 활동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제18기 민주평통이 기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 네 가지 과제에 대해 혁신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민여론 수렴과 정책건의는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통령의 정책수립과 추진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한 민주평통의 핵심역할이다. 특히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에 의해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여론수렴과 정책건의는 평화로운 한반도 정착과 평화체제 담론에서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덕룡 수석부의장



한국사회 내 존재하는 이념, 지역, 세대, 빈부, 노동 등의 다양한 갈등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투영되어 특수한 갈등유형으로 다시 나타난다.



▲ 김덕룡 수석부의장

여론수렴과 정책건의의 범위는 현안문제, 중단기 전략, 평화통일을 위한 장기적 과제, 국민적 공감대 형성방안 등이 있을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평창올림픽, 이산가족, 남북군사회담 등 베를린 선언 이행, 한반도 신경제도 전략, 평화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과제, 해외순방 시 대통령의 중요행사,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 다양한 이슈들도 있다. 여론수렴과 자문건의의 방식은 현행의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현장기반형 등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국민적 합의의 조성과 공감대 형성기반 조성은 첫 번째 과제만큼 중요한 민주평통의 역할이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평화로운 한반도 정착’을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다. 한국사회 내 존재하는 이념, 지역, 세대, 빈부, 노동 등의 다양한 갈등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투영되어 특수한 갈등유형으로 다시 나타난다.

그 갈등은 한반도 분단 이후 지속되어 온 현상으로 북한을 보는 인식과 통일에 이르는 방법, 대북관, 통일관 등의 차이에서 비롯, 분단체제하에서 시기별로 그 형태와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중 민족문제에 특정 정파의 이해관계를 넘어 민족공동체 전반의 안위와 미래에 관련된 사안으로 기본적 합의기반 형성이 필요하다. 이에 민주평통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내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통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걸림들로 작용했던 것들을 제거하는 방안으로 국민적 합의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강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민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향이 필요하다.

셋째, 민주평통은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적 합의기반을 형성하기 위해 ‘통일국민협약’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구체화시켜야 할 것이다. 통일문제에 대한 여야간 정책 신뢰 및 시민사회의 진영간 남남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내적 신뢰구조 형성이 필요하다. ‘통일국민협약’은 일사불란한 합의의 지향기 아니며 남남갈등과 민족문제의 정쟁화 구조를 해소하는 사회적 노력으로 최소주의적인 합의를 추구해야 한다. 대북정책 합의구조의 형성은 국민참여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민주평통은 국내외 대표성을 지난 2만 여명의 지도급 인사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지역, 계층, 정파, 세대를 초월한 평화통일운동을 국민 속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협의회를 기점으로 지역과 지역, 광역과 지역 사이의 연계활동을 강화하고 민주평통이 명실상부한 국민적 통합 기반확립의 초석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3만 명의 북한이탈 주민은 관리차원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한 통합적 접근의 시작이라는 측면에서 접근 지원해야 할 것이다. 결국 민주평통의 강한 지역 네트워크를 통해 모든 민간에게 다가갈 수 있는 더욱 다양한 통일공감대 확산 방향이 필요하다.

다시 한 번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슬로건을 되쳐본다.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



〈사진자료: 청와대,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근 북핵 정세 특징과 한국의 대응방안

정성윤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 지난 10월 9일 북한 노동당 창건기념일을 앞두고 주한미공군 오산기지에서 대공 감시 레이더가 가동됐다

김정은 체제 등장 이후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체제 구축 여건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등장 이후 지난 5개월 간 북한은 수소탄 실험, 두 차례 ICBM급 도발을 포함해 총 10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김정은 정권의 지속적인 도발과 핵능력 고도화로 인해 국제 대북제재 레짐은 한층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역내 관련국 간 전략적 이해가 상호 대립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도 점차 높아지면서 동북아의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은 고조되고 있다.

북한의 핵전력 고도화에 대한 의지가 너무나 강건하고, 역내 주요국들의 비핵화 의지가 여전히 강력하게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 구축을 위한 타협국면은 쉽게 형성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북핵 문제의 주요 당사자인 미국과 북한이 상대에 대한 요구조건을 낮추거나 상대방의 요구조건을 수용할 의지가 낮기 때문에, 당분간 비핵화 대화 재개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이처럼 북핵 문제의 돌파구가 단기간 구축되기 어려운 구조 하에서, 결국 북한의 비핵화 없이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정착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엄중한 북핵 정세에 직면한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대북 정책을 설계해야만 할 것이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27일 청와대로 제18기 민주평통 간부 자문위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첫째, 북한의 실체적 안보위협에 직면해 우리의 안보정책 방향은 '현실 위협 수준'에 대한 냉철한 대응일 것이며, 비록 정치외교적으로 북핵 보유국의 지위를 인정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군사안보적으로는 북핵이 사실상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안보전략을 구축해야만 할 것이다.

통상적으로 안보전략 구성 및 전력화에는 최소 3~5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북한 핵 무력이 완결된 이후에 이에 대응한 자주 국방력 강화사업은 전력상 공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소위 Kill-chain, KAMD, KMPR 중 자주적 역량 강화에 해당되는 L-Sam, M-Sam, SM-3 장착을 위한 이지스함 개선사업, KF-16 개량형 사업, 전작권 전환과 연동되는 한국 주도의 국방전략 수립은 그 완성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입장과 원칙을 확립한 후 제재 운영 메커니즘을 일관되고 전략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둘째,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안보적 대처는 항시적으로 작동해야 할 것이지만, 결국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인 비핵화 여건을 실천적으로 구축해야만 한다. 북핵 문제는 결국 대화와 외교를 통해서 해결해야만 한다. 하지만 북한의 비타협적 저항이 강력하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바처럼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지하고 북한을 대화로 강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정책 방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대북제재 국면에 대한 우리의 전략적 입장과 원칙을 확립한 후, 제재 운영 메커니즘을 일관되고 전략적으로 실행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의 구체적 목표에 대해 한·미·중간 일치된 공감대를 형성해야만 한다. 또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유인한 후, 대화 과정에서 지연 전술과 기만으로 실질적인 비핵화 타협을 거부하려는 북한을 강력히 견제하기 위한 전략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핵화 대화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북한과 협의 가능한 대화 의제들(zone of possible agreement)을 미연에 준비해야만 할 것이다.



▲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지난 9월 16일 화성-12형 IRBM을 발사하고 기뻐하고 있다



## 통일은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평화 담론은 한반도 안정과 미래에 필요충분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에게 우리의 평화체제 구축 의지를 각인시키고 남북관계의 주도권 강화, 대북 교섭능력 증진을 위해 한반도 평화담론을 공세적으로 추진하는 노력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역대 한국 정부는 '평화 담론'을 북한의 통일전략전술의 일환으로 치부하며, 평화 담론이 내재하고 있는 실천적·미래지향적·일반적 가치를 경시해왔다.

통일 또한 한반도 평화가 전제되어야 함으로, 평화 담론은 한반도 안정과 미래에 필요충분조건이다. 북한의 도발과 핵미사일 고도화가 이러한 평화 가치에 역행하고 있음을 북한에게 좀 더 공세적으로 주지시켜야만 할 것이다. 아울러 인류 보편적인 평화담론을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에 구체적으로 포함해, 국제사회에 비핵화-평화체제 구축을 한국이 주도한다는 명분을 적극 천명할 필요가 있다.

(사진자료: 청와대, 연합뉴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북한 잦은 핵실험 등으로 대기오염 '심각'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북한이 전 세계 172개국 중 대기오염 상태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잦은 핵실험과 산림훼손, 석탄 사용량 등이 가장 큰 이유인데요. 나날이 심각해지는 남북한의 환경오염 실태와 원인,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대기오염 사망률

남한 23.2명, 북한 238명  
남한의 10배



대기오염에  
의한  
사망자수



23.2명

24명

161명

238명

미세먼지  
농도

$29\mu\text{g}/\text{m}^3$

$13\mu\text{g}/\text{m}^3$

$58\mu\text{g}/\text{m}^3$

$34\mu\text{g}/\text{m}^3$

## 주요원인

화력발전소 및 화학단지 경유차,  
중국 영향(34%)

잦은 핵실험, 화력발전소 공장  
석탄 연료 사용, 나무 부족,  
중국 영향 등

※ 인구 10만 명 기준, 2017세계보건통계 자료 / 보건영향연구소(HE) 2015미세먼지농도



## 수질 오염도

남한 한강 3급수, 낙동강 4급수  
북한 대동강 2급수, 두만강 3급수 이하

	남한(2016)				북한(2008)	
	한강	금강	낙동강	영산강	대동강	청천강
COD*	3.9	4.2	6.4	2.9	2.15	2.67
급수	3급수		4급수	2급수	2급수	

< 단위:mg/l >

※ 남한은 4대강 중 영산강만 2급수(COD 2.9)이며, 낙동강의 오염수치가 가장 높다.

※ 북한은 두만강(화력제지공장 표백제, 탄광폐수 유입), 압록강(중국 산업 폐수, 생활오수)은

물론 2008년 당시 2급수에 가까웠던 대동강, 청천강 역시 공공폐수 및 산림 황폐 등으로 수질이 떨어지고 있다.

\*COD(Chemical Oxygen Demand)는 오염물질을 산화제로 산화 분해시켜 정화하는데 소비되는 산소량을 ppm 또는 mg/l 로 나타낸 수치다.

▲1급수 마실 수 있는 물(COD 1mg/l 이하)

▲2급수 목욕, 수영이 가능한 물(3mg/l 이하)

▲3급수 황갈색을 띠는 탁한 물로 농사에 사용(6mg/l 이하)

▲4급수 이하 생물이 살 수 없는 물(8mg/l 이하)



## 토양 오염도

남한은 폐기물처리 지역 53곳이 오염기준 초과  
북한은 정유소, 광산 주변 중금속 함량이 높음





〈단위: mg/kg〉

※ 토양오염 기준(1지역기준) : 카드뮴 4mg/kg, 수은 4mg/kg, 비소 25mg/kg, 납 200mg/kg  
 ※ 북한은 지속적인 산림면적 감소로 '산림 황폐화 지수(2011)'에서 180여 개 국가 중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볼리비아와 함께 '4개의 극단적인 산림 황폐화 국가'로 꼽혔다.  
 ※ 남한은 전국 2,512개 지점 중 53곳에서 토양오염 기준치를 초과했다.  
 토양오염 기준은 사람과 동식물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준을 뜻한다.



### 자연재난 빈도

남한은 지진 60%, 호우 26%  
 북한은 지진 71%, 호우 20% 발생





호우



태풍



대설



지진

※ 2006~2015년 남북 자연재난 현황



## 남북 환경개선 어떻게?



- 01 북한의 핵실험 중단
- 02 자연훼손 방지 및 산림 가꾸기
- 03 석탄 사용 줄이기
- 04 폐수 줄이기 및 정화시설 갖추기
- 05 신재생에너지 개발, 확장하기

※ 참고자료

〈북한 환경기술 연구현황과 남북 과학기술 협력방안〉,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통일 대비 북한지역 자연재해 대응을 위한 자료 구축과 남북협력 방안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가주요지표 미세먼지 농도, e-나라지표 수질현황, 자연재난 통계

〈2015 재해연보〉 국민안전처

“北평양평남 미세먼지 기승 화력발전소인구 ‘이중밀집’ 영향”, 데일리NK, 2017.1.30.

북한 대기오염 사망률, 남한의 10배 YTN, 2017.5.25.

# 10·4 선언 10주년 기념 특별 강연회가 열린 '제18기 민주평통 지역회의 출범식'

2007년 10월, 평양에서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북관계의 발전과 평화번영을 선언한 날이다. 남북의 상호존중과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경제협력사업과 사회문화 교류를 활성화하는 등 6·15 남북공동선언 내용을 적극 구현하자는 결의를 다진 날이었다.

올해는 '10·4 남북정상선언'이 발표된 지 교박 10년이 됐다. 문재인 정부와 함께 새롭게 출범한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게는 어느 때보다 특별한 해이다. 이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의 17개 지역회의들이 지난 9월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제18기 출범식을 가졌다.



## 더 많이 일하고 존경 받는 평통 일꾼이 됩시다

9월 14일에는 서울사이버대학교에서 서울지역회의의 출범식이 개최됐다. 출범식에는 서울 지역 자문위원과 협의회장, 황인성 사무처장, 이세웅 서울부위원장, 김중욱 서울시 정부부시장 등 내외빈 50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서울 지역 부위원장 취임식 △동영상 상영 △문정인 특보 특별강연 △유니버설발레단의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이세웅 서울지역 부의장은 지난 16, 17기에 이북5도 지역회의의 부의장을 역임했다.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올해 18기 서울지역을 맡은 이세웅 부의장은 "18기 민주평통의 모토가 '변화와 혁신'인 만큼 서울지역회의가 더 일을 많이 하고, 더 존경받는 평통 일꾼이 되자"고 말했다.

황인성 사무처장은 이세웅 부의장의 취임을 축하하며 "이북5도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남기신 것처럼 서울 지역회의도 성공적으로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오늘 특강을 통해 자문위원들이 10·4 정상선언이 내포한 평화와 통일의 의미를 되새기며 지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기개를 얻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이세웅 서울지역 부의장



▲ 황인성 사무처장



▲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 '경제'는 평화를 만드는 최상의 도구

2부에서는 10·4 남북정상선언에 관한 동영상 상영과 함께 문정인 특보의 특별강연회가 이어졌다. 문정인 특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 특별 통일보좌관으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특별 수행원으로 참석한 바 있다.

문 특보는 10·4 남북공동선언은 과거 진보와 보수 상관없이 모두가 수용한 남북합의서로 종전 선언을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하며, 문재인 정부는 10·4 선언의 연장선상에서 3가지 전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 첫째는 북한의 어떤 무력도발도 용납하지 않을 것, 둘째는 북한을 흡수 통일하지 않을 것, 셋째는 남북의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을 것이다.



▲ 문정인 특보 강연을 듣고 있는 자문위원들

아울러 한국전쟁 이후 북한이 지금까지도 도발적이고 적대적이었던 사례가 없었다며 “경제는 평화를 만드는 최상의 도구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2010년 스탠퍼드대학교 지그프리드 헤커 교수가 연변에서 농축우라늄 시설을 방문한 뒤 했던 조언처럼 북한의 핵무기 안전관리 능력과 핵무기의 소형화 및 규격화, 핵기술 유출 문제 등을 협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재와 압박, 대화와 협상을 각각 한축으로 하되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위해서는 1단계 북한 핵 동결을 목표로 최대한 유연성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10·4 선언에 뿌리를 둔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

9월 21일 수원청소년문화센터에서는 경기지역회의 출범식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경기 지역 자문위원과 협의회장들, 윤신일 경기지역 부의장,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 480여 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취임식 △동영상 상영 △정세현 前 통일부장관 특별강연회 △문화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윤신일 경기지역 부의장은 “2,547명의 18기 경기지역 자문위원들이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은 물론 세대와 계층을 뛰어 넘는 사회통합의 표본을 보여주시길 기대한다”는 취임사를 전하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잠자던 평화통일의 목소리를 깨워 한반도 번영을 위해 함께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신일 경기지역 부의장

영상으로 축사를 대신한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현재 남북관계는 북한의 6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담은 ‘10·4 남북정상선언’의 의미를 되새겨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지향하는 경기지역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세연 전 통일부장관

제29대, 30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정세연 전 통일부장관은 이날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의 뿌리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간의 통일정책 변천사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지난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전두환 대통령까지는 북한에 대해 봉쇄정책을 펼쳤고, 80년대 중반부터는 국제정세가 바뀌어 노태우 정부부터 변화가 시작됐다고 설명하며, “노태우 대통령은 88올림픽을 계기로 북한의 동맹국인 소련,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해 국가 경제를 키우기 위한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김대중 정부부터는 본격적인 관여정책이 진행됐으며, 노무현 정부 때는 많은 민심이 작용해 ‘10·4 남북공동선언’을 개최했다고 전했다.

정세연 전 장관은 또한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이 10·4선언, 6·15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남북관계를 풀어나가기 위한 현 시점에 맞는 인게이지먼트 정책을 펼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17개 지역에서 개최된 ‘10·4 선언 10주년 기념 제18기 출범식’

지역	일정	인원	지역	일정	인원
서울지역회의	9월 14일	500명	충북지역회의	9월 25일	300명
세종지역회의	9월 15일	100명	대구지역회의	9월 25일	300명
충남지역회의	9월 18일	300명	전북지역회의	9월 26일	320명
대전지역회의	9월 20일	300명	경북지역회의	9월 26일	300명
인천지역회의	9월 21일	300명	부산지역회의	9월 26일	400명
경기지역회의	9월 21일	400명	울산지역회의	9월 27일	350명
경남지역회의	9월 21일	350명	광주지역회의	9월 28일	380명
강원지역회의	9월 22일	300명	제주지역회의	9월 28일	300명
전남지역회의	9월 22일	320명			



참가 소감

국민통합 이끌어내는 18기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나운영(경기 수원협의회)**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구상을 통해 앞으로 국민들의 통일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에게도 이런 세미나를 자주 열어주면 국민 통합이 더욱 수월하지 않을까합니다.



**김현숙(부천 오정구협의회)**

평소 통일 관련 소식은 마스크에서만 접했는데, 오늘 특강을 들으니 막연하던 생각을 다시 정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신규 자문위원으로서 앞으로 통일에 대해 더 배우고 열심히 통일의 필요성을 전파하겠습니다.



**한태숙(서울 용산구협의회)**

18기 출범과 부의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이세웅 부의장님의 취임사처럼 한반도 통일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자문위원이 되겠습니다.



**이동화(서울 서대문구협의회)**

앞으로 자문위원 활동을 통해 평화통일을 철저히 준비해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교육이나 포럼이 더욱 많아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중섭(서울 강동구협의회)**

평화안착을 위해 군사적 적대행위를 종식하고 10·4 선언의 재확립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민주평통이 이 선언을 계승해 남북의 평화통일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 이슈 in 통일

'이슈in통일'은 최근 한 달간 주요 언론사들의 통일 관련 소식 중 이슈화 되었던 기사들을 모아 클리핑한 코너입니다.



## 수도권 시민들 “핵실험 지진 처음 느꼈다… 식은땀이 났다”

북한이 사상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한 3일, 인터넷에는 “지진을 느꼈다”는 시민들의 글이 수천 건 올라왔다.

+ 더보기



## 문 대통령 “차원이 다른 조치 필요” 대화에서 압박 기조 전환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북한이 실감할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더보기

## 한국경제

### 北 핵실험 3대 궁극증 ①수소폭탄 맞나 ② 핵탄두 소형화 했나 ③궤도 붕괴됐나

북한이 지난 3일 강행한 6차 핵실험 결과를 놓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장착할 수 있는 수소탄 시험에 성공했다”는 주장을 믿을 수 있는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 더보기



## 宋국방 이어 與서도 “전술핵 재배치”…북핵 맞불카드 될까

북한의 핵능력이 완성 단계에 근접하면서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 더보기



## '8500억 돈줄' 북한 섬유제품 수출차단 북 노동자 고용 땀 안보리 승인 받아야

석탄에 이어 북한이 둘째로 많이 수출하는 섬유 제품을 유엔 회원국들이 수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 상당한 압박 카드로 여겨진다.

+ 더보기



## 12일 F-15 전투기 타우러스 발사, "400km 날아가 직도사격장 표적 명중"

휴전선에서 200km 떨어진 대전 상공에서도 북한 지휘부 건물과 핵심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독일제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가 첫 실사격훈련에서 표적에 명중했다.

+ 더보기



## 유엔 제재 못 믿어... 미 의회, 중국 12개 은행 제재 나선다

유엔에서 마련한 새로운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압박에 나섰다.

+ 더보기



## 통일부 "IOC 총회서 北접촉해 평창올림픽 참가 유도"

통일부는 페루 리마에서 개막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북측과의 접촉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유도할 것이라고

+ 더보기

## 세계일보

### "北, 로켓 액체연료 독자생산 사용 대북 원유차단 조치 이미 늦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미국 정보기관이 북한이 ICBM과 IRBM을 잇따라 발사하면서 로켓 액체연료를 독자적으로 생산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 더보기



## 완전파괴·자살임무·로켓맨... 트럼프, 유엔데뷔전서 北 집중포화(종합)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대 다자외교 무대인 유엔에서 19일 연설에서 "미국과 동맹을 방어해야 한다면 북한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 외 다른 선택이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 더보기



## 文대통령 유엔총회서 22분간 '평화' 주창... 리용호 자리 비워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제72차 유엔총회에 참석해 북한 대표단을 응시하며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 더보기



## 리용호, 트럼프 향해 "개 짖는 소리"... 美·北, 유엔서도 말폭탄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21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한 완전 파괴' 발언에 대해 "개 짖는 소리"라고 답했다.

+ 더보기



## 한겨레

### 북한 주민이 주도한 '아래로부터의 시장화'

헤이즐 스미스 영국 런던대 동양아프리카연구원(SOAS) 한국학센터 연구교수는 <장마당과 선군정치>라는 책을 통해 북한을 '아래로부터의 시장화'와 '위로부터의 핵무장'이 교차하는 나라라고 말했다.

+ 더보기

## 新東亞

### “온 국민이 합의할 국민통일협약 만든다”

김덕룡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 합의가 없으면 결국 갈등이 발생하게 되고 정책의 추진력도 잃게 된다”며 통일 원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더보기

## dongA.com

### “핵무기 처리-난민 대비해야” 中서 확산되는 ‘북한 포기론’

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로 인한 한반도 위기에 대비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북한을 포기할 수도 있다는 논의가 중국 내부에 계속 확산되고 있다.

+ 더보기



### 文대통령 10·4계승 평화론 강조 ‘통 큰 제안’ 보다 ‘상황관리’

문재인 대통령이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북한을 향해 대화를 촉구하면서도 국제사회의 역할을 강조했다.

+ 더보기



### “트럼프, ‘DMZ 회담’ 등 대북협상 ‘와일드카드’ 고려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위원장에게 호통치는 것을 그만하고 양보를 토대로 북한과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더보기



### “북·중 합작 기업 120일 내 폐쇄” 중국 상무부 통보

중국이 자국 내에 북한이 설립한 기업이나 중국과의 합작, 합자기업들에 대해 120일 내에 폐쇄하라고 28일 통보했다.

+ 더보기

역사가 남긴 아픔을  
세상의 빛으로 담아낸  
**DMZ 사진작가 최병관**



© 최병관, 이 사진은 허락없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서른두 살 한 청년은  
일찍 홀로되신 어머니를 보고  
**사진 공부**를 시작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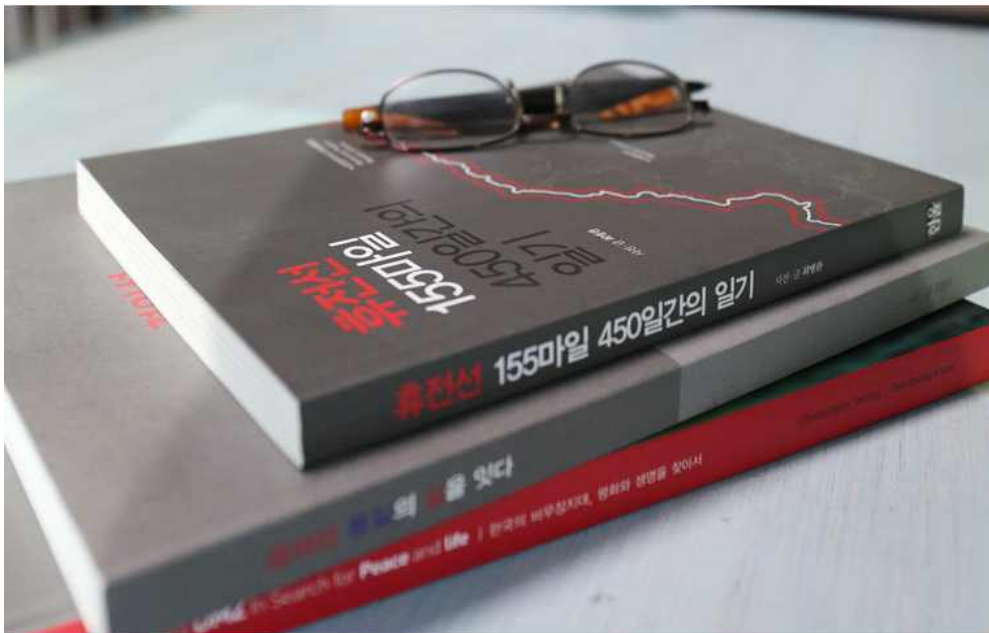
부모님도 고향도 영원하지 않다는  
안타까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운 어머니’

그날로 어머니와 고향 소래포구를  
 사진으로 담기 시작한 그는  
 어느 날 '1995년 육군사관학교 개교50주년' 사진작가로  
 부름을 받습니다. '오래 머물고 싶은 화랑대'라는  
 제목의 사진책이 그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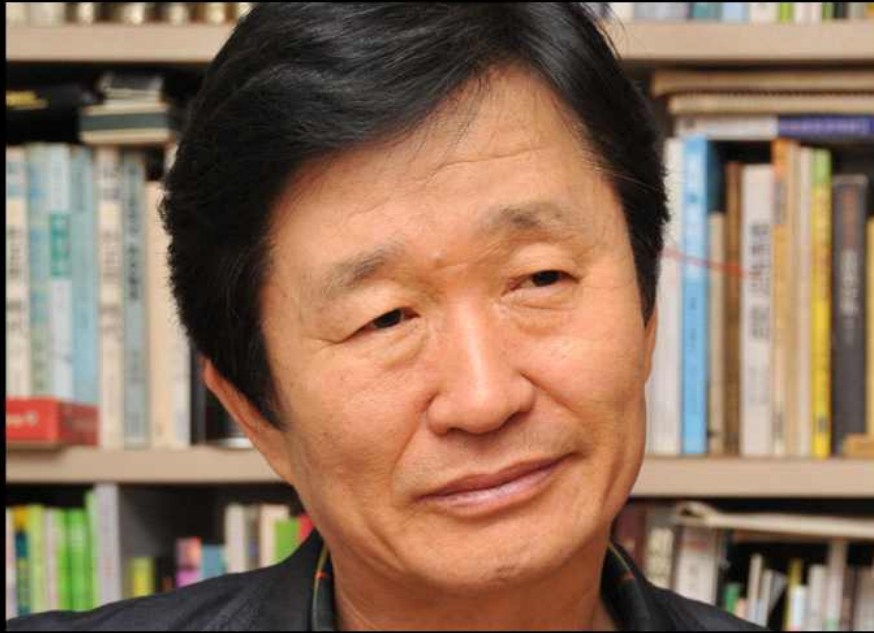
그의 사진을 보고 감동한 인사참모부장  
 김희상 장군은 또 다른 제안을 합니다. 바로  
 '비무장지대' 사진을 찍어 역사에 남을 전시와  
 사진책을 만들어달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에 최병관 사진가는 450일간  
군인들과 생활하며 서쪽 끝 섬 '말도' 부터  
동쪽 끝 '해금강'까지 155마일을 세 번 왕복해  
하루 종일 비무장지대를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2010년 7월 한국 작가 최초로  
뉴욕 유엔본부에서 전시된  
KOREAS DMZ IN SEARCH FOR PEACE AND LIFE  
'한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와 생명을 찾아서'가  
그 결과물입니다.



“목숨 바쳐 우리를 도와준  
16개국 병사들에게 은혜를 갚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번은 퇴짜 맞고 세 번째 승낙 받았는데,  
뜻이 옳으면 하늘도 감동한다고…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릴 수 있는 기회였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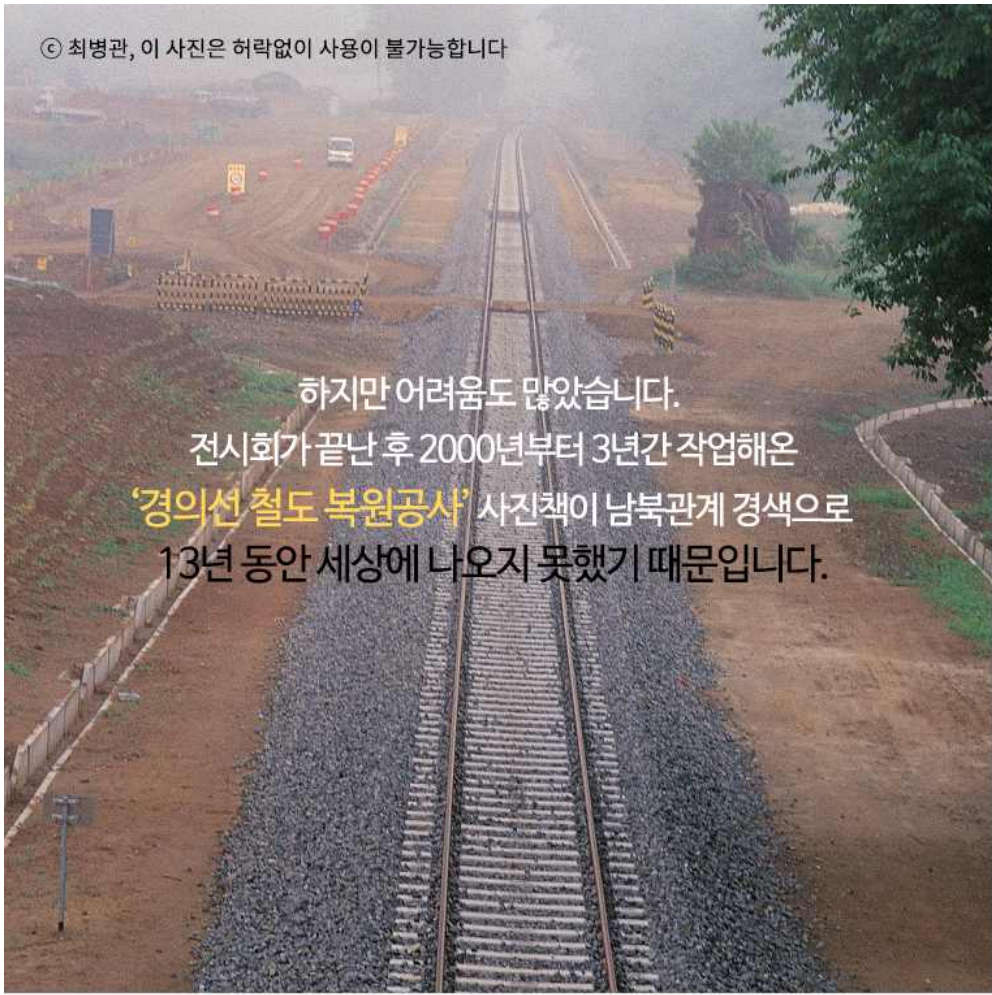
## 인천일보

[통일의 길, 경의선] 5. 반세기 '한계'를 넘은 소년소녀



▲ 남한 소년소녀  
그러다 지난 2015년 12월 통일부의 도움으로  
〈경의선 통일의 길을 잇다〉를 출간했고,  
얼마 전에는 인천일보 창사 29주년을 맞아 매주  
한면 가득 그의 사진과 글이 실리고 있습니다.

© 최병관, 이 사진은 허락없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어려움도 많았습니다.  
전시회가 끝난 후 2000년부터 3년간 작업해온  
**‘경의선 철도 복원공사’** 사진책이 남북관계 경색으로  
13년 동안 세상에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 최병관, 이 사진은 허락없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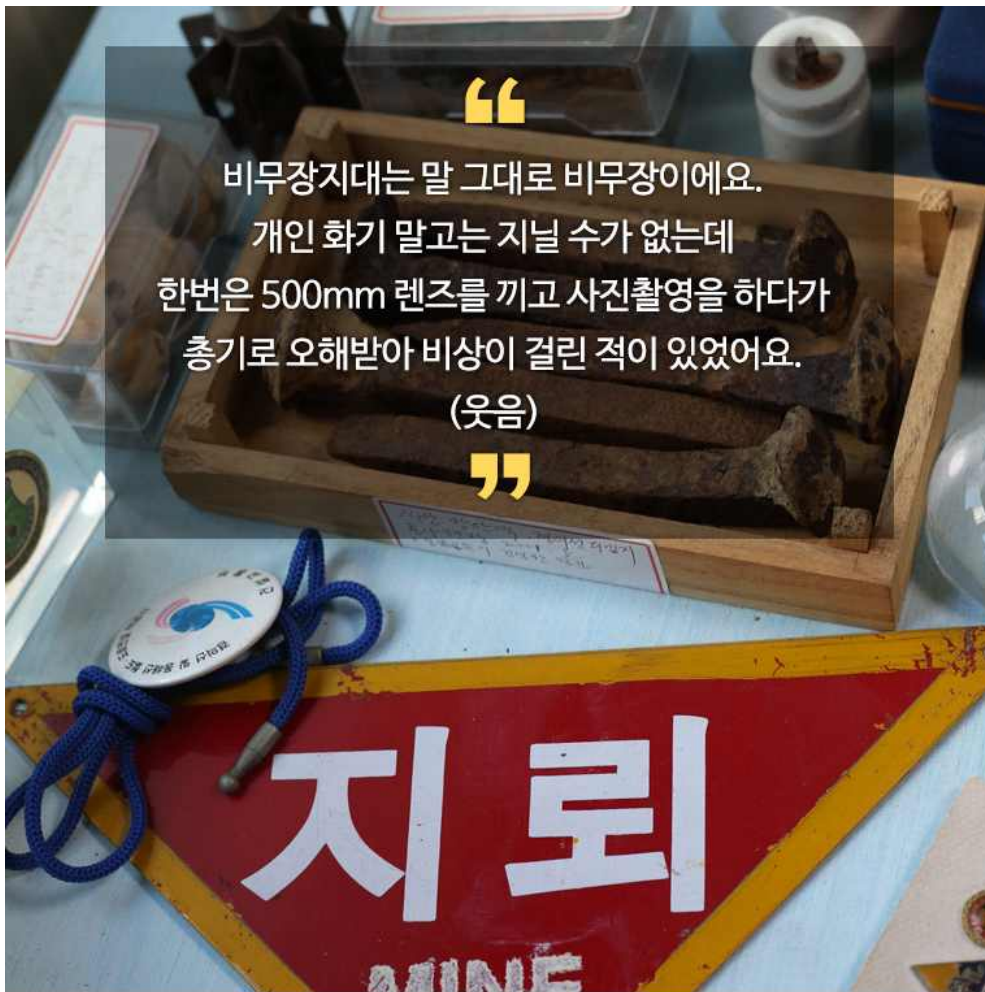


햇살이 눈부시도록 고운 어느 봄날  
녹슨 철모를 뚫고 피어난 들꽃 앞에서 나는 경승이 되었습니다  
총탄에 쓰러진 병사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습니다.  
철모의 주인은 다시 들꽃으로 피어나  
비무장지대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복받쳐 흐르는 눈물을 두 손으로 가리기에는  
터무니없이 적다는 걸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어렴풋이 한 맺힌 절규의 목소리가 힘겹게 들려왔습니다

“이 땅에 평화의 꽃을 활짝 피워주세요  
아리도록 그리운 고향을 자유롭게 오가며 보고 싶은 부모형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글, 사진 최병관

<한국의 비무장지대, 평화와 생명을 찾아서>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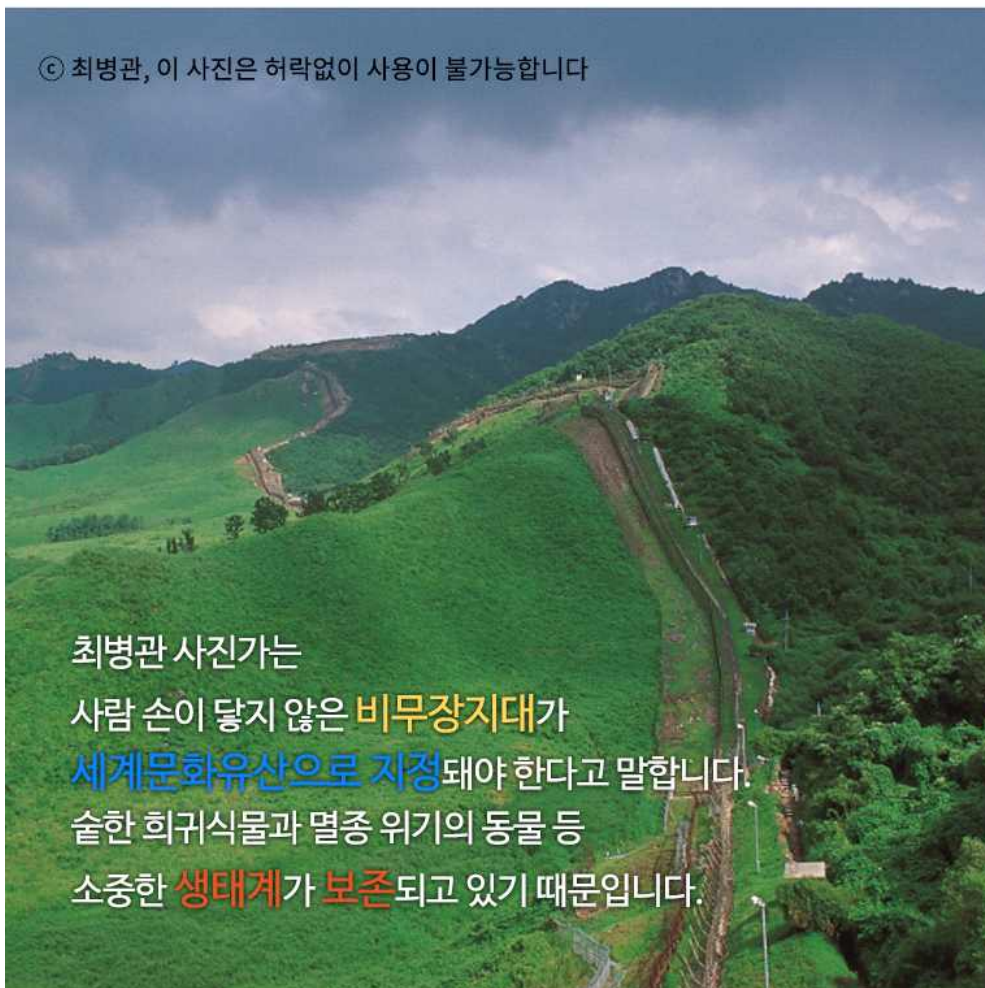


“

비무장지대는 말 그대로 비무장이예요.  
개인 화기 말고는 지닐 수가 없는데  
한번은 500mm 렌즈를 끼고 사진촬영을 하다가  
총기로 오해받아 비상이 걸린 적이 있었어요.  
(웃음)

”

© 최병관, 이 사진은 허락없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최병관 사진가는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비무장지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합니다.  
술한 희귀식물과 멸종 위기의 동물 등  
소중한 생태계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또다시 식민지를 겪지 않으려면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통일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네요.

통일에 앞서 평화가 찾아오는 날, 그는  
비무장지대의 반토막이 아닌 남북 4km 전체를,  
그리고 북한 지역의 아름다움까지 세계에 알리는  
앨범을 만들고 싶다고 하네요.



# ‘같이 가는’ 사회적 기업이 되고 싶어요!

## 곤충사료 도소매업 운영하는 김민기 대표

전남 담양 메타세쿼이아길을 지나 오른쪽 도로로 달리다보면 커다란 입간판과 함께 돌장승 두 개가 나타난다. 탈북민 김민기 대표가 운영하는 밀웜 농장이다. 밀웜은 ‘갈색거저리’라고 불리는 곤충의 애벌레로 햄스터나 고슴도치 도마뱀, 개구리 등의 애완동물 먹이로 사용된다. 올해로 남한정착 16년차에 접어든 김민기 대표를 만났다.



### 개구리,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다

농장 문을 열자마자 맛있는 썰거 냄새가 진동한다. 총총이 들어차 있는 노란 박스들에는 ‘유치원’, ‘중3’, ‘고2’ 같은 글귀들이 써있는데, 밀웜의 성장 단계를 적어둔 표시라고 한다.

김민기 대표는 2001년 가족들과 함께 한국에 왔다. 북에서는 송이버섯을 중국으로 밀수하는 일을 했는데, 중간에 잡혀 감옥살이를 하다가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 밀웜 사업을 하기 전에는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다 문득 식용 산개구리 사업이 떠올랐고 적당한 장소를 찾다가 지금의 담양까지 오게 됐다.

하지만 식용개구리 사업은 실패로 끝났다. 개구리 100마리를 키우면 절반 정도가 죽는데, 나머지 절반으로 낼 수 있는 수익과 사육료의 타산이 맞지 않았던 까닭이다. 개구리 사업은 그를 빈털터리로 만들었지만 김민기 대표는 넘어진 곳에서 다시 일어서다. 남북하나재단의 도움으로 사육장 건축 비용을 지원받은 덕분이었다.



▲ 김민기 대표가 운영 중인 밀웜 농장



▲ 농장에서 키우고 있는 밀웜들

그때부터 그는 밀웜에 미쳐 살았다. 덕분에 2015년에는 농촌진흥청과 기술보증기금에서 각각 1억 원씩을 지원받아 사업을 확장했고, 끊임없는 연구 끝에 곤충의 성장호르몬을 찾아내 사료용 밀웜 개발에 성과를 내기도 했다.

“밀웜, 귀뚜라미, 굴뚝이 등 웬만한 곤충사료는 다 판매하고 있어요. 저희는 협동 농가가 많아서 물량이나 완성도가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제 목표는 ‘식용 건강증’이에요. 밀웜이 아무리 미래 식량이라고 해도 지금 당장 밀웜을 먹겠다는 분들은 없거든요. 조만간 식품 문을 열 생각이예요.”

밀웜 농장은 크게 3가지 관리가 중요하다. 먹이와 청결과 밀도 유지다. 채소는 3일에 한 번씩 넣어주고, 죽어 있는 송충은 바로바로 빼주는 것이 중요하다. 밀도 유지는 밀웜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일이다. 한 박스 안에 적정량의 밀웜을 넣어줘 서로 부대끼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다.

이렇게 키운 밀웜은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으로 진공 건조시켜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유통된다.



▲ 진공 건조시킨 밀웜을 포장 중인 직원과 김민기 대표



▲ 김민기 대표가 유통하고 있는 귀뚜라미 사료

## 서로 끌고 잡아주는 ‘같이 가는 기업’

그가 5년간 넘어지지 않고 사업을 이어올 수 있었던 것도 ‘같이 간다’는 경영 마인드 덕분이었다. 물론 ‘월 매출 1억’이라는 눈에 보이는 목표도 있지만 그렇다고 돈만 잘 버는 회사가 되는 게 전부는 아니기 때문이다.

“누굴 돕는 게 쉽지는 않아요. 다달이 몇 십 만 원씩 빠지는 돈이 솔직히 아쉬울 때도 있고요, 사업하는 사람은 항상 돈에 쫓기거든요. 하지만 말만 하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시작했어요. 이왕 같이 가는 거 사회에 필요한 일도 하면 좋잖아요.”

생각해보면 힘들지만 지금의 밀천이 된 일들도 많았다. 처음 담양에 내려와 50CC 오토바이를 끌고 다니며 곤충을 키우겠다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했던 일, 1년간 일당을 두 배로 뜯겼던 일, 법률을 몰라 과대광고로 영업정지를 받았던 일 등 이야기를 꺼내자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담양군의원들을 비롯해 담양군의회, 담양경찰서, 담양기술센터 등 말만 하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주는 곳들이 많았다고 한다.



▲김민기 대표가 그동안 연구, 개발해 획득한 밀원사업 관련 특허증들

## 일로 외로움을 이겨내세요, 좋은 날이 옵니다

김 대표의 최종적인 꿈은 식품과 곤충사료를 유통하는 '사회적 기업'이 되는 것이다. 그가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고 자신과 같은 탈북민들을 채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누군가와 '같이 간다'는 마인드를 실천하기 위해서다.

“저는 백번 말하는 사람보다 한 번 움직이는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누가 시키면 되게 하기 싫잖아요. 하지만 진심으로 일하다보면 서로 말하지 않아도 돈독해지고 신뢰가 쌓인다고 생각해요. 저희 회사엔 그런 사람들만 남더라고요(웃음).”

그는 탈북민들을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어렵고 힘든 데서 온데다 아무 연고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래서 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힘든 일을 겪은 사람일수록 무서울 게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탈북민들은 생존력이 강하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것이 없다고 한다.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건 '외로움'이다. 외로움을 극복하는데 김 대표가 제안한 방법은 '자기 일에 미쳐 사는 것'이다. 한동안 일에만 매달리다 보면 모든 상황이 나아져 있을 거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요즘 청년사업 교육을 이수하고 있다.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신청했는데, 덜컥 선정돼 정신없이 교육을 받는 중이다. 교육이 끝나면 건강검진을 비롯해 산개구리잡도 한 번 더 도전할 생각이다.



▲ 밀원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 김민기 대표

1인 기업으로 시작해 어느새 직원 3명과 함께하며 '같이 가는' 기업으로 자리 잡고 있는 김민기 대표. 1년, 3년, 5년 뒤에는 그의 곁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기대해 본다.

# 하늘을 비추는 강물 가을을 노니는 바람, 충북 단양

내 몸의 무거움을 비로소 알게 하는 길입니다  
서둘지 말고 천천히 느리게 올라오라고 산이 나를 내려다보며 말합니다

- 이성부 <갈딱고개>



▲충북 단양도담삼봉

한 걸음 내딛으니 길이 뒤로 따라온다. 길은 뒤따라서도 오고 앞서 가기도 하며 길과 함께 걷다보면 발을 옮겨 놓을수록 마음이 한걸 가벼워져 제법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가고 있는 것이었다. 그렇게 나는 운명에 온몸을 내맡기며 정처 없이 걸어가는 처지가 되어 남한강 푸른 물줄기를 따라 단양의 길을 걷는다. 어쩌면 단양의 진짜 명물은 '길'이 아닐까. 마침 메밀꽃이 흐뭇하게 피어 이 땅에 가을이 왔음을, 이 대지에 천명하는 듯하다.

## 남한강 물길에서 노닐어 천하를 품다, 도담삼봉과 만천하 스카이 워크



'단양팔경'이라 하여 단양에는 무려 여덟 가지의 이름난 경치가 있는데, 이곳은 그 중에서도 단연 첫 번째 경치다. 정도전이 자신의 호를 이곳의 지명을 빌려와 '삼봉'으로 지었을 정도로 사랑해마지 않았던 곳. '도담리에 솟은 세 개의 바위'라는 도담삼봉은 마치 뽕 산(山) 자를 연상하는 모습으로 가운데 바위가 유독 우뚝하다. 바다도 아닌 강에 우뚝 선 저것은 섬인가 산인가. 흡사 동해 바다를 지키는 독도와 같이 우뚝 서서 풍기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다.

질푸른 남한강 물은 땅 위에 배를 대고 드러누운 거대한 용의 형상으로 흘러가다 문득 만학천봉에서 몸을 일으키고, 하늘로 고개를 쳐든다. 단양의 만학천봉은 만개의 골짜기와 천개의 봉우리 사이에 우뚝 솟은 바위다 관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입는 도포를 닮았다하여 옷바위라고도 불렀다. 어변성룡(魚變成龍)이 실현되는 자리, 가히 용문(龍文)이라 할 만하다. 물고기가 용이 되어 비상을 시작하면 그 용의 등에 올라타고 세상을 내려다보는 일, 상상이 아니다.



▲만학천봉 전망대에서 내려다본 남한강

남한강의 경관이 내려다보이는 만학천봉 꼭대기에 혼천의나 천문대 형상의 현대의 건축물이 서 있는데, '만천하 스카이워크'의 만학천봉 전망대다. 나무 데크와 나선형으로 상승하는 길을 따라 오르면 어느새 꼭대기에 도달하는데, 전망대 꼭대기에는 유리 바닥 아래로 천하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어 있다. 만학천봉의 아래 절벽에는 포효하는 듯한 호랑이 문양이 있어 예로부터 신성시되었던 곳이라 하며 하나의 소원을 빌면 이루어준다고도 한다.



▲하늘 끝까지 오를 것 같은 만학천봉 전망대



▲유리 바닥 아래로 천하를 내려다보다



## 어두운 터널 끝에 빛의 문을 열다, 이끼터널과 수양개빛터널

단양에는 터널이 많다. 단양 읍내에서 3번국도를 따라 애곡마을 쪽으로 가다보면 차 한 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좁은 터널들이 연이어 나온다. 예전의 철길 구간을 포장도로로 만들어 터널이 된 것인데 터널 앞에 신호등이 달려 있다. 맞은편에서 차가 진입하면 빨간 신호등으로 바뀌는 방식의 양방향 일방통행 길이다. 신호를 받은 차들이 터널을 차례로 건너기 위해 70초를 기다려야 한다. 만약 이 기다리는 잠시의 시간이 지루하다면, 우리는 이미 너무 빠른 세상에 길들여져 우리 본래의 속도를 잊은 지 오래라는 걸 자각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조금 더 천천히 마음의 속도를 늦춰본다.

터널을 지나면 낙석방지용 콘크리트벽이 양쪽으로 설치된 곳이 있는데, 여름 동안 이끼가 자라 '이끼터널'을 만들어낸다. 이끼 벽에 새겨진 이름들은 첫사랑과 같은 밀도로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어 강렬한 꿈을 꾸는 듯하다. 식물이 내뿜는 생기가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 인공과 자연이 만들어낸 단양의 명물 이끼터널

주변에는 구석기 유물을 발견한 장소를 박물관으로 꾸민 수양개 선사유물전시관이 있다. 이곳 수양개의 구석기 유물 중에는 중학교 국사 교과서에 실린 '물고기 모양을 새긴 예술품' 등의 귀중한 유적이 많아 역사 교육장으로 큰 가치와 의의를 지닌다. 전시관 뒤편으로 나가면 터널을 불빛으로 가득 채운 '수양개빛터널'이 있다. 문을 열어젖히니 불빛이 가득 차 있었다. 지금껏 우리가 마주치던 답답한 시멘트 냄새나는 터널은 여기에 없다. 이곳의 터널은 낮설고, 어쩐지 훨훨 날아가는 기분마저 든다. 터널의 끝에 환한 불빛이 새어 들어오는 문이 있었다. 저 문을 열면 무엇이 있을까, 기대하며 밖으로 나가니 결국 우리가 방금 서 있던 그 세상이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모든 순간이 천국이고 극락이 아니었을까. 터널의 끝에서 다시 마주하게 된 우리의 생이 반갑다.



▲ 터널 안에 빛을 담은 수양개빛터널



▲ 수양개선사유물전시관

우리 혼을 담은 우리 그릇의 맥을 잇다,  
방곡도예촌



단양에서 59번 국도를 타고 경북 문경과 예천 쪽으로 가다보면 방곡도예촌이 나온다. 방곡도깨비마을로도 불리는 이곳은 600년 전부터 그릇을 만들기 시작해 지금도 밭에서는 돌보다 사금파리가 더 많이 나오는 장소로, 현재까지 우리 '사기그릇'의 명맥을 이어나가고 있다. 문득 마을 입구에서 만난 한 사람이 있었다. 정치 없이 이곳의 낯선 자취를 더듬어 온 손님에게 차 한 잔 대접하겠노라 하던 사람, 알고 보니 충북 무형문화재 10호이자 대한민국 명장인 '방곡도요' 서동규 명장이었다. 염치 불구하고 가마 구경을 하겠다고 했더니, 명장은 선선히 자신의 가마터를 안내했다. 그렇게 우연히 만나 가볍게 차 한 잔 놓고 시작했던 담소가 자못 무게를 더해 나갔다.



▲ 소나무로만 불을 때는 전통 방식 가마



▲ 물과 흙으로만 빚어 나무로만 굽는 명인의 그릇

“도자기는 우리말이 아닙니다” 명인은 우리 그릇의 역사와 정신이 무엇인가를 되물었다. “도자기는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를 하면서 일본식으로 만든 말이고, 옛날부터 이어온 우리말은 '사기그릇'입니다”라며 우리의 혼을 담은 그릇이 일본으로 건너가 '이도다완(정호다완)'이 된 사연이 이어졌다. 작은 밥그릇 같기도 한 이 그릇은 흔히 '막사발'로 불리는데 임진왜란 때 끌려간 조선 도공에 의해 일본에 전해졌다. 한 치 오차도 없는 일본의 예술 속에서 유약이 흐르는 대로, 금이 가는 그대로 자유분방하게 만든 이 그릇은 뜻밖의 파격이 되어 대대로 일본인에게 찻사발로 사랑받는다. 자연과 인공의 숨씨를 절묘하게 배합한 이 그릇은 명인의 전시관에서 그 당당한 모습을 뽐내고 있었다. 일본에서 여러 번 전시회를 할 때도 명인은 우리 그릇의 정신을 지키기 어려운 국내 현실이 안타까웠다고 한다.

명인의 나이는 여든이다. 그는 그릇을 만든 지 60년을 한결같이 예술적인 고가의 그릇이 아니라 밥이나 국을 담을 수 있는 막그릇만 만들어왔다. 누구나 쓸 수 있는 생활도자기를 고집하고 흙과 나무와 물과 불로만 그릇을 만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그가 개발한 녹자는 청와대로 납품돼 식기로 사용될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았다. 가마에서 소금도 굽는데, 천일염을 감싸 가마의 위쪽에서 구워내 '방곡도염'을 개발했다. 1300도 정도에서 15시간 이상 구워진 소금은 유해성분은 날아가고 맛이 부드러워진다.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끝없이 소중한게 '우리 것'을 지켜내는 그 마음이 아름다웠다.



▲ 서동규 명장과 나누는 따뜻한 차 한 잔

# 담백하고 고소한 황해도식 호박만둣국

호박만둣국은 김치소 대신 소금에 절인 호박소를 넣어 만든 황해도식 만둣국이다. 황해도는 평야와 바다가 접하고 있어 쌀과 밀, 채소와 해산물이 풍부한데, 호박으로 속을 채운 호박만두는 멸치나 북어 같은 해산물 육수와도 잘 어울린다. 김치가 없을 때 어머니의 지혜를 담은 빛은 담백한 황해도식 호박만둣국을 만들어보자.



## 요리재료

애호박 500g, 다진 돼지살코기 100g, 두부 150g, 숙주 100g, 파 10g, 밀가루 500g 또는 만두피  
양념: 간장 15g, 소금 5g, 후추 0.5g, 참기름 10g, 볶은 참깨 2g



### Step 1



애호박은 가늘게 채 썰어 소금에 절여둔다.

### Step 2



절인 호박은 물기를 꼭 짜고 다진 돼지살코기, 두부, 데친 숙주, 파와 양념 재료를 넣어 만두소를 만든다.

### Step 3



호박소가 완성되면 만두피에 한 수저를 크게 떠 예쁘게 빚는다.

### Step 4



물 뜨는 기호에 따라 맛을 낸 육수에, 빚어둔 만두를 넣고 푹 끓인다.

### Step 5



만두가 다 익으면 완성된 만두국에 계란 지단, 실고추, 잣 등을 곁들여 올려 먹는다.





## 만두는 만두소 맛으로 먹는다

'송편은 피맛에 먹고, 만두는 소맛에 먹는다'는 말이 있다. 고기와 채소가 양념과 어우러져 피 속을 꽉 채우는 만두소가 집집만의 만두 맛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만두(饅頭)는 만두 만(饅)자에 머리 두(頭)자를 써서 '머리 모양의 만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송나라의 '사물기원(事物紀原)'에 따르면 거센 물살을 건너려던 제갈공명이 수호신을 달래기 위해 사람의 머리 모양 음식을 만들어 제사를 지냈다는 데서 유래했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오늘날 만두를 만들어 먹게 된 것도 여기서 비롯됐다.



# 민주평통 주요 뉴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민과 소통하고 화합하는 통일운동 중심체로서 통일정책에 관해 대통령에게 자문건의 하는 것을 비롯하여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확산하고 통일외지와 역량을 결집시키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을 조성하자”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협의회 출범식



지난 9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의 228개 지역협의회가 '제18기 출범식 및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각 지역 대행기관장과 지역회의 부의장, 자문위원 등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18기 협의회장들의 취임사와 함께 간사 임명장 전수, 자문위원 위촉장 수여, 자문위원 선서, 전임 협의회장 및 간사 공로패 수여, 제18기 자문회의 활동방향 보고 순으로 이루어졌다.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국내 자문위원은 지역대표 16,080명, 직능대표 13,100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내외 전체 19,710명의 자문위원 중 10,504명이 신규 자문위원이다.

## 통일시대 시민교실, 포럼, 강연회



▲ '10·4남북정상선언 10주년 기념 평화공감 특별강연회(세종지역회의)



▲ 제18기 신임위원연수회(전남 영광군협의회)

세종지역회의(부의장 고희순)는 9월 15일 주요인사 및 자문위원, 세종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10·4 남북정상선언 10주년'을 기념하는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의 특별 초청강연회'를 개최했다. 전남 영광군협의회(회장 박준화)는 14일 '제18기 신임위원연수회'를 열어 제18기의 활동방향과 통일마일리지제도, 2017년 하반기 사업일정 등을 공유했다.

### 운영위원회 개최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서울지역회의)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충북지역회의)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부산지역회의)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전북지역회의)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가 서울지역회의(부의장 이세웅, 9월 7일), 충북지역회의(부의장 박문희, 9월 4일), 부산지역회의(부의장 이영, 9월 6일),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 9월 7일)에서 열렸다.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광주지역회의)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대구지역회의)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전남지역회의)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대전지역회의)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가 대구지역회의(부의장 허노목, 9월 7일), 광주지역회의(부의장 장해숙, 9월 8일), 대전지역회의(부의장 이미현, 9월 7일), 전남지역회의(부의장 이완식, 9월 8일)에서 진행됐다.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경북지역회의)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충남지역회의)



▲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경남지역회의)

'제18기 1차 지역회의 운영위원회'가 **경남지역회의**(부의장 최광주, 9월 8일), **경북지역회의**(부의장 이상천, 9월 8일), **충남지역회의**(부의장 김학민, 9월 8일)에서 개최됐다.

## 통일문화 확산



▲ 제18기 출범식 부대 행사(전남 장흥군협의회)

▼ 우리가 꿈꾸는 통일(충북 괴산군협의회)



**전남 장흥군협의회**(회장 위수미)는 '제18기 출범식 부대 행사'로 남북관계의 개선을 기원하고, 국민의 통합과 통일의지를 다지는 뜻이 담긴 '평화통일소망나무 리본달기'를 진행했다. **충북 괴산군협의회**(회장 정현)는 '2017 괴산고추축제'가 열린 9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가 꿈꾸는 통일'이라는 주제로 가족과 함께하는 통일희망 메시지 쓰기, 통일 손잡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통일문화부스를 운영했다.



▲ 공주시 기관·단체장 일심동체 명랑운동회(충남 공주시협의회)



▲ 함께 걷는 평화의 길, 함께 여는 통일의 문(전북 김제시협의회)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임재문)는 13일 백제체육관에서 자문위원들과 '공주시 기관·단체장 일심동체 명랑운동회'를 진행했다. **전북 김제시협의회**(회장 도인기)는 '제19회 김제 지평선축제' 기간 동안 지역주민 및 축제장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민주평통의 인식제고 및 평화통일 마인드 확산을 위해 평통 홍보부스를 운영했다.

통일  
수기공모



▲ 통일암 경착수기 공모전 심사위원회(전북지역회의)

▼ 통일암 경착수기 공모전 심사위원회(강원지역회의)



전북지역회의(부의장 홍종식)와 강원지역회의(부의장 조창진)는 9월 12일 여성위원장 등 심사위원을 구성해 '2017 통일암 경착수기 공모전 심사위원회'를 열었다.

공로패  
전달식



▲ 공로패 전달식(충남 공주시협의회)



▲ 공로패 전달식(광주지역회의)

충남 공주시협의회(회장 임재문)는 15·16·17기 협의회장을 역임한 김기필 회장에게, 광주지역회의(부의장 장혜숙)는 16일 제17기 최상준 광주부회장을 비롯한 5개구 협의회장, 지역 간사, 지역 위원장 11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 통일미래세대 육성



▲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사탐방(경기 하남시협의회)



▲ 강원 청소년 사진영상 콘테스트 심사(강원지역회의)



▲ 청소년 평화통일염원 현장 견학(경기 양평군협의회)

경기하남시협의회(회장 전주진)는 12일부터 15일까지 '2017 민주평통 통일골든벨 하남시협의회대회'에 입상한 학생 28명, 지도교사 6명과 함께 독립 운동가들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역사탐방을 다녀왔다. 강원지역회의(부의장 조창진)는 13일 '2017 강원 청소년 사진영상 콘테스트' 심사를 진행해 총 118편의 접수 작품 중 초·중·고 대상·최우수상·우수상 18편을 선정했다. 경기 양평군협의회(회장 전경복)는 8일 초등학생 130여 명과 함께 평택 2함대 사령부로 '2017 청소년 평화통일염원 현장 견학'을 다녀왔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 북한이탈주민과 온정나누기(경기 시흥시협의회)

▼ 북한이탈주민 중추절 합동차레(서울 양천구협의회)



경기 시흥시협의회(회장 김영심)는 13일 '북한이탈주민과 온정나누기' 행사를 개최해 추석명절에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프트 카드를 전달했다. 서울 양천구협의회(회장 임경화)와 경기 수원시협의회(회장 성열학)는 18일 임진각 망배단에서 '2017 북한이탈주민 중추절 합동차레'를 지냈다.

## 지역봉사활동



▲ 노인복지관 배식봉사(전남 진도군협의회)



▲ 음식 나눔 봉사(제주 제주시협의회)



▲ 통일맘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지역봉사 (충남 청양군협의회)

전남 진도군협의회(회장 이기암)는 11일 18기 자문위원들과 함께 군내 노인복지관 배식봉사를 진행했고, 제주 제주시협의회(회장 성일승)는 15일 중증장애인 대상 복지시설을 찾아가 음식 나눔 봉사를 실시했다. 충남 청양군협의회 여성분과위원회(위원장 표훈영)는 19일 송편과 북한식 만두를 빚어 관내 독거노인들에게 전달하는 '통일맘과 함께하는 추석맞이 지역봉사'를 진행했다.

## 해외활동



◀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동남아 서부협의회)



동남아 서부협의회(회장 김정인)는 14일 호치민 총영사관에서 '제18기 민주평통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박노완 호치민총영사관 총영사, 박남중 민주평통 호치민 지회장, 총영사관 영사들이 참석했다. 이날 박노완 총영사는 “최근 북핵 문제가 갈수록 대두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럴 때일수록 자문위원님들의 역할이 더욱 크다”며 “18기는 앞으로 이에 걸맞은 위상과 역할을 다하자”고 말했다.

제18기 북유럽협의회 및 프랑크푸르트 지회 자문위원 위촉식(유럽 북유럽협의회) ▶▶



유럽 북유럽협의회(회장 김희진)는 지난 9월 '제18기 북유럽협의회 및 프랑크푸르트 지회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금창록 총영사는 북유럽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식에서 “평통 자문위원들은 민족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게 됐다”며 “북한의 6차 핵실험 등 우리가 당면한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고 한반도 평화변영 기반을 조성하는데 본 분회소속 자문위원들이 앞장서 모범을 보여주기 바란다”는 축사를 전했다. 현재 제18기 해외자문위원 북유럽협의회는 18개 국가(21개 공관, 독일 4개 공관 포함), 총 141명의 민주평통자문위원으로 구성됐다.



◀ 18기 하와이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하와이협의회)



미국 하와이협의회(회장 박재원)는 14일 주 호놀룰루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제18기 하와이협의회 자문위원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강영훈 총영사는 “조국의 평화통일은 물론 하와이 한인동포들의 화합과 단결에도 힘써 달라”고 당부하며 간부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 제18기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자문위원 상견례 및 위촉장 전수식(샌프란시스코협의회)

미국 샌프란시스코협의회(회장 정승덕)은 8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제18기 샌프란시스코협의회 자문위원 상견례 및 위촉장 전수식'을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 대표로 참석한 이화행 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으로서 국법을 준수하고,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민족의 염원을 받들어 맡은바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선서를 낭독하며 자문위원들과 새로운 각오를 다졌다. 이어 정승덕 회장은 "모두 축하드리고 18기에서는 17기 사업 중 잘된 것을 보강해 성장시키고, 대형 통일사업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웹진 (e-행복한통일)에 게재된 내용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민들의 통일비전을 이끌어내는 민주평통”

## ‘제18기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사워크숍’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장 황인성)는 9월 19일 ‘제18기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사워크숍’을 실시했다. 18기 출범과 함께 마련된 간사워크숍은 각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업무현황과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 등을 공유하고 제18기 민주평통이 나아가야 할 활동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 민주평통의 보배,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사

제18기 지역회의·지역협의회 간사워크숍은 대전 유성호텔에서 1박2일간 진행됐다. 행사에는 18기로 임명된 지역회의 및 지역협의회 간사들과 황인성 민주평통 사무처장, 사무처 직원들, 이미현 대전지역회의 부의장이 함께했다. 주요 내빈으로는 김영운 경제협력분과 위원장,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센터장, 곽중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첫째 날 일정은 개회식을 시작으로 △업무현황 보고 △‘우리에게 통일의 미래비전이 있는가’ 특별강연 △‘제18기 민주평통에게 바란다’ 토크콘서트 순으로 진행됐다.



▲ 이미현 대전 부의장



▲ 황인성 사무처장

황인성 사무처장은 이날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 간사들을 '민주평통의 보배이자 허리'라고 표현하며 "1박2일 동안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을 바르게 이해하고, 제18기 민주평통의 방향을 공유, 결의해 생생한 현장 여론을 수렴하는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함께 협력해줄 각 지역 담당관 14명을 소개했다.

이미현 대전지역회의 부의장은 "민주평통은 통일에 관한 국민들의 여론 수렴과 합의 도출, 민족적 의지와 역량 결집을 임무로 하고 있다"며 "간사님들께서는 각 지역회의와 지역협의회가 국민소통의 선도적 역할을 감당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김영윤 경제협력분과 위원장

## '사실상의 통일'을 준비하는 18기 민주평통

업무보고 순서에서는 강승환 중앙지역과장이 제18기 활동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에 따르면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총 19,710명의 국내외 자문위원이 함께 하고 있으며, 이중 여성위원이 31%, 만 45세 이하의 청년위원이 21%, 전체 위원들의 62.8%가 신규위원으로 구성됐다. 이에 강승환 과장은 간사들에게 18기 신규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김영윤 경제협력분과 위원장이 '우리에게 통일의 미래비전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진행했다. 김영윤 위원장은 강연에서 1년 4개월 만에 이루어졌던 독일 통일 과정에 대해 설명하며, 동서독이 통일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와 급작스런 통일이 가져온 여러 문제들을 짚어주며 "남북한도 제도적, 정치적 통일은 아니어도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일' 상태를 만들며 통일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



▲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



▲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장



▲ 광종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

## 민주평통은 평화문화 정착을 위한 여론의 중심

‘제18기 민주평통에게 바란다’ 토크콘서트는 4명의 패널들이 5가지 주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의견과 방안들을 제시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날 제시된 5가지 주제는 ①민주평통 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 ②국민 여론수렴 및 정책건의 ③통일에 대한 국민합의의 소송과 공감대 형성 ④통일 후계세대 양성 방안 ⑤탈북민 지원 활동 방향이다.

이에 변진홍 한국종교인평화회의 사무총장은 민주평통의 지난 활동 방향들을 돌아보며 “18기 민주평통은 의장이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따라 자문회의가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4대 대북정책 기조에 따라 북한이 핵이 없어도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확신과 그를 뒷받침하는 안보 환경 조성, 평화와 번영의 길로 나가는 비전을 제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토크콘서트를 듣고 있는 제18기 민주평통 간사들

국민 여론수렴과 정책건의 부분에서는 김창수 코리아연구원 원장이 “민주평통은 각계 선망 받는 전문가들과 사회활동 경력을 가진 분들이 많아 효과적인 여론수렴과 정책건의가 가능하다”며 “첫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현안에 대해, 둘째는 한반도 신경제지도에 대해, 셋째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한 남북관계 개선 방향에 대해 각 현장에서 뛰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 밀착형 여론과 지혜를 수렴해 참신한 정책건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통일에 대한 국민합의의 소송과 공감대 형성 부분에서는 변진홍 사무총장이 “우리 사회의 평화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원칙이 먼저 확립돼야 한다”며 서로 입장은 달라도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는 통일협약 등의 기준을 만들어 민주평통이 대화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통일 이후 행복한 대한민국으로의 목표전환

조진구 고려대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동아시아화해협력센터 센터장은 통일 후계세대 양성 방안에 대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취업 등 어려운 상황 때문에 통일 대해 무관심하지만 통일이 됐을 때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 역시 그들”이라며 대학에서는 통일강좌를 개설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통일을 가깝게 인식할 수 있는 동아리나 토론회를 많이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종문 한겨레중고등학교 교장은 탈북민 지원 활동방향에 대해 “결혼준비는 결혼식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 이후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인지에 목적이 있다”는 비유를 들며 “우리도 통일보다는 통일 이후 통합된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로 목표를 전환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3만 명의 탈북민들을 지원이나 관리의 대상이 아닌, 우리와 같은 생산적 기여자, 국민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둘째 날에는 △민주평통 SNS 활용방법 설명회와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의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및 한반도 주변 정세’ 강연 △지역별 활동방향 논의 시간 등이 이어졌다.

양무진 부총장은 북핵문제 해결과 항구적 평화정착,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한반도 신경계 공동체 구현을 위한 5대 추진원칙 및 4대 추진전략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3대 목표'를 설명하며 약 한 시간 동안 간사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응답해주었다.

끝으로 지역별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제18기 자문회의의 활동목표와 연계한 지역조직운영 방향을 논의하고 간사들의 화합을 도모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가졌으며, 오찬과 함께 제18기 간사워크숍의 막을 내렸다.



## 통일은 나로부터 오는 작은 실천



### 이병헌 간사(경북 문경시협의회)

젊은 분들이 많은 걸 보니 18기는 보다 힘차게 나아갈 것 같습니다. 통일은 '나로부터 오는 작은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사라는 직책이 조금은 무겁게 느껴지지만 나로 인해 좋은 변화들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이옥희 간사(부산 서구협의회)

통일은 화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정책간 분단이 먼저 해결되면 통일도 자연스럽게 오지 않을까 합니다. 지난 6년 간 여성분과위원장을 해왔는데 그때의 각오를 이어받아 임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덕진 간사(경기 화성시협의회)

평화통일에 대해 여러 가지로 알게 돼 감회가 새롭습니다. 탈북민들과 대화도 해보면서 통일을 어떻게 준비해나갈지 열심히 고민하고 연구하며 화성시협의회를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 김민철 간사(제주 제주시협의회)

아버지께서 자문위원을 하셨었습니다. 옆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와보니 책임이 막강한 것 같습니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온 국민이 희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정희 간사(대전 대덕구협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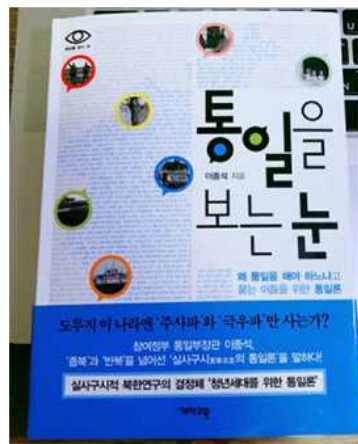
통일은 같이 가는 동반자라고 생각합니다.  
민주평화통일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부지런히 배우며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위해 뛰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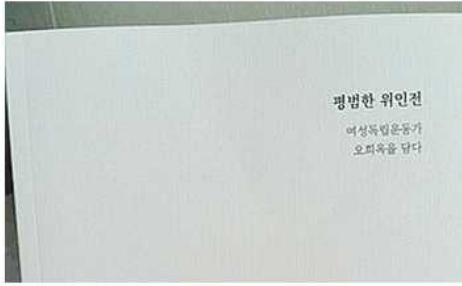
# 통일·역사 관련 책 읽고 인증샷·감상평 이벤트 당선작

## 통일한국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통일을 보는 눈〉

이중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원이 쓴 〈통일을 보는 눈〉이라는 책을 추천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하는데 북한을 제대로 알고 인식해야 현 한반도 주변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통일한국의 연착륙 및 초석도 잘 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경욱님)



## 여성 독립운동가들의 이야기 〈평범한 위인전〉



〈평범한 위인전〉은 여성독립운동가 오희옥 선생님을 비롯해 국사책에서 배운 인물들도 많이 만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게 편안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이름도 몰랐던 독립운동가들 덕분이 아닐까요. (김향이 님)



## 우리나라 역사와 통일 문제를 생각하게 되다

### 〈분단고통과 통일전망의 역사〉

한국전쟁이라는 같은 사건을 두고도 남한은 '6.25전쟁' 북한은 '조국해방전쟁'으로 부르며 서로 다른 시각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인 통일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많은 영감을 주는 책입니다. (통일상담소 님)





# 축하메시지 영상을

## 캡처해 보내주세요!

제18기 민주평통 기념 이벤트

umber=1048#header



[부의장 및 협의회장 영상 보러 가기 >>](#)



[상임위원 영상 보러 가기 >>>](#)

축하메시지 영상 중 마음에 드는 인사말 화면을 캡처해  
응모하기로 보내주시면 10명을 추첨해  
4천 원 상당의 편의점 음료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 ◆ 참여방법 안내 ◆

**응모기간** 2017년 10월 16일 ~ 11월 3일까지

**응모방법** 응모하기로 캡처 영상 첨부  
(이유를 적어주시면 당첨 확률이 높아집니다)

**경 품** 모바일 커피 교환권(4천 원 상당) 10명



[응모하기](#)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출범 기념

# Quiz event

◆◆ 2017년 10월 16일~11월 3일까지 ◆◆

‘제18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지난 9월 1일 새로운 모습으로 출범했습니다

QUIZ

18기 활동전략 중 빈칸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말은 무엇일까요?

속으로,   과 더불어,  
  과 하나 되어

힌트보기



◆◆ 참여방법 ◆◆

빈칸에 들어가는 말을 아래에 응모하기 또는 비밀댓글로 남겨주시면  
30명을 추첨해 2천원 상당의 모바일 편의점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응모기간 2017년 10월 16일~11월 3일까지

응모방법 응모하기 또는 비밀댓글  
(상품수령을 위해 전화번호를 꼭 남겨주세요!)

경 품 편의점 음료 상품권 (2천 원 상당) 30명



축하합니다!

# e 행복한 통일 이벤트 당선

민주평통 웹진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민주평통 헌법 몇조 이벤트

닉네임	휴대폰 번호
사교계여우	010-**30-7742
하루가길어	010-**58-9396
도봉산	010-**97-6002
행운	010-**69-5819
조영미	010-**10-9285
규신	010-**75-1082
재현	010-**81-9824
대현아	010-**28-5431
현실도피	010-**37-9185
강형종	010-**82-3792
홍승임	010-**53-6703
춘천가는녹차	010-**40-0623
이은주	010-**28-3162
두리몽실	010-**06-5985
꼬리잡기	010-**50-7091
란돌살앙	010-**51-7172

고구마	010-**44-1250
나철수	010-**16-2849
애니	010-**74-9866
코스모스	010-**18-4922
꽃다람쥐	010-**72-3251
미승	010-**64-4760
이강나	010-**38-7418
강미선	010-**25-9001
오타왕	010-**73-1462
통일~	010-**32-1902
체어맨	010-**36-1517
까꿍	010-**84-5479
호야	010-**02-6468
오디	010-**05-8278



### 복불복 통일 사다리 이벤트

닉네임	이메일 주소
뽀미닛	**dtn0104@naver.com
llmk28	**mk28@hanmail.net
탈모아웃	**ltime@hanmail.net
등근해	**sporter@hanmail.net
요한	**a119@hanmail.net
미리내	**h2293@hanmail.net
아스란자	**_74@naver.com
김순정	**jk0820@hanmail.net
이캔천사	**ecan1004@seoulmetro.co.kr
호갱갑	**ndori3986@naver.com
후니으니	**joy654@nate.com
민서짱	**3185@hanmail.net
블랙비트	**ngton@naver.com
화이트	**swoghd@hanmail.net
블루베리요거트	**riljeon@naver.com

아직도 청춘  
serenity  
푸메  
기운만땅  
미네랄워터

\*\*a0303@hanmail.net  
\*\*ro04@naver.com  
\*\*ukyaggo@naver.com  
\*\*dnsaksekd@naver.com  
\*\*1982ko@naver.com



### 웹진 만족도 조사 이벤트

휴대폰 번호

휴대폰 번호

010-\*\*98-0115

010-\*\*14-3589

010-\*\*13-8574

010-\*\*26-7102

010-\*\*03-4760

010-\*\*73-0889

010-\*\*60-0350

010-\*\*89-0021

010-\*\*28-5431

010-\*\*51-6272

010-\*\*50-7091

010-3620-9631

010-\*\*99-1272

010-\*\*50-4437

010-\*\*00-7920

당첨되신 분들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이벤트는 계속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행복이의 첫 유학, 남북 홈스테이 연수

글. 김혜진/그림. 이택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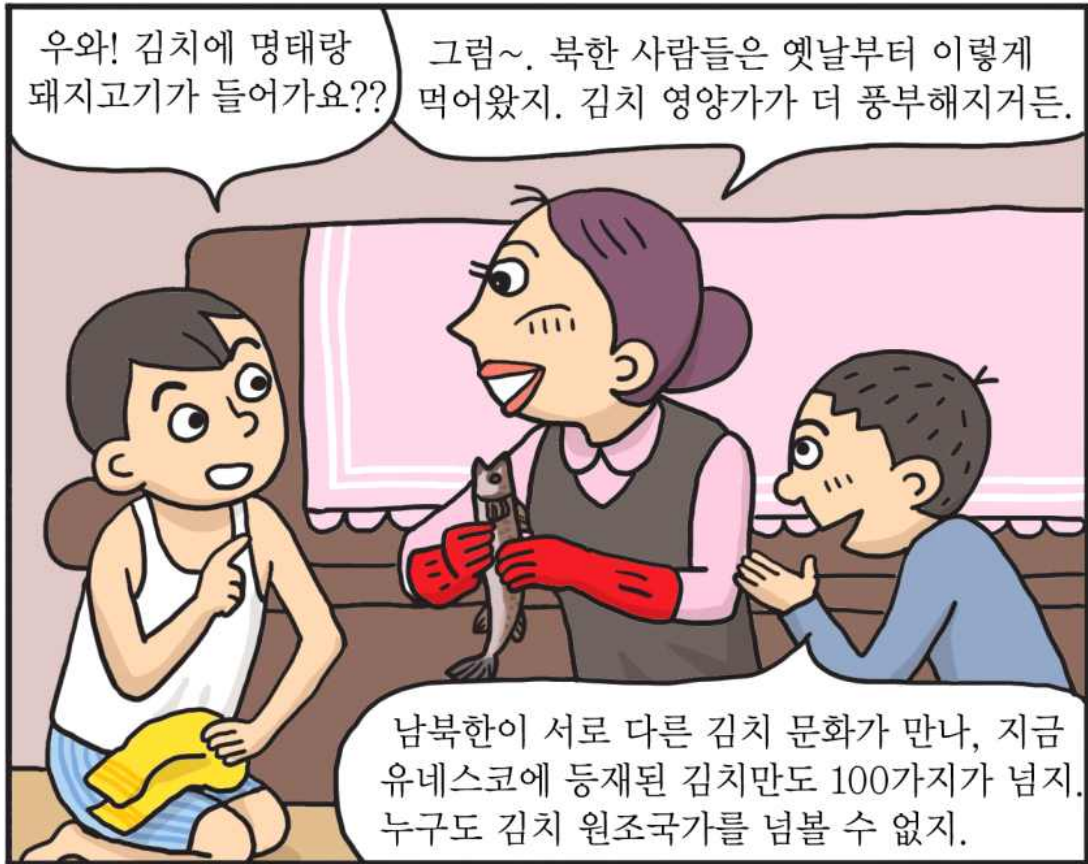






김장 담그시는 거예요?

그래. 북한은 춥기 때문에 김장을 일찍 담그기도 하고, 너에게 회령에서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보여주려고 일부러 오늘 하는 거란다.



우와! 김치에 명태랑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렇게 먹어왔지. 김치 영양가가 더 풍부해지거든.

남북한이 서로 다른 김치 문화가 만나, 지금 유네스코에 등재된 김치만도 100가지가 넘지. 누구도 김치 원조국가를 넘볼 수 없지.





# 북한의 명문대학 학생들에겐 100% 취업이 보장된다?

이준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 김일성종합대학교 캠퍼스 전경

2006년 김정일은 노동당 과학교육부에 '장사형 수능 제도'를 없애라고 명령했다. 장사형 수능 제도란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절 대학교수들에게조차 배급을 주지 못하고 대학운영이 어려워 물자를 내면 점수와 상관없이 20명까지 입학시키던 특별전형 제도를 말한다. 대학입시 만큼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뜻이다. 하지만 김씨 일가와 일부 권력 앞에서는 여전히 예외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의 대학입시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 정권에 충실한 북한의 명문대

북한은 1946년 10월 1일 처음으로 종합대학을 창립하고 당시 34세인 김일성의 이름을 단 '김일성종합대학'으로 명명했다. 정상적인 종합대학의 체모를 갖추기 위해 북한은 남한에 파견원을 보내 계몽상, 한설야 같은 많은 교수들을 초빙해 그들을 눌러 앉혀 교육발전의 동력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도둑질을 하던 영입을 하던 명문대의 기틀을 마련하고 발전시켜 현재는 철학, 법학, 경제학, 물리학, 수학 등 14개 학부에 200여 개 강좌를 갖춘 북한 최고의 엘리트 양성기지로 발돋움한 것이다.

하지만 김책공업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장철구평양상업대학 등 북한의 명문대 들에는 지식으로 사회발전에 공헌한 사람보다 김일성 일가와 정권에 충실한 사람들의 이름을 단 대학들이 많은 것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명문대의 명칭만 봐도 우상화 강국이라 일컫는 북한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단면이다.

핵미사일 개발 등 다른 나라의 기술을 도둑질해 수천만 달러 가치의 '보물'을 획득해 온 사람이나 김정은 부인 리설주의 남동생, 호위국(경호부대)의 근접경호원 등이 바로 그들이다. 이들과 이들의 자녀들은 머리가 나빠도 무시함으로 입학한다.



▲ 2010년 김정일이 평양의학대학에서 현지 지도 중이다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김정은까지 법 위에 있는 2중 제도로 공정한 경쟁이 아닌 신분과 계급 우선주의로 고착된 현실을 보여주는 셈이다.

## 🎓 서민층 자녀들이 명문대학을 포기하는 이유

김일성종합대학은 졸업 후 북한사회 각 분야에 파견돼 해당기관의 당 간부로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다. 때문에 첫째는 신분, 둘째는 실력, 셋째는 군복무 경력, 넷째는 당원의 자격을 갖춰야 하는 일류급 대학 중 하나다.

김책공업종합대학은 기술 전문대학으로 북한의 각 기관, 공장, 기업소 등을 관리하는 기사장, 지배인, 내각의 상, 총리 등 행정 경제 일꾼을 양성하는 기지다. 이곳 역시 간부 선임 조건은 김일성종합대학과 같다.

평양외국어대학은 외교관이나 무역회사 통역 등 외국에 나가서 일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다. 김형직사범대학과 평양의학대학은 교원과 의사 전문양성기관인데, 제법 안정적으로 먹고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 있어서 호감도가 높은 편이다.



▲ 장철구 평양상업대학의 호텔 전문인력 양성과정

장철구평양상업대학은 중앙과 지방의 상업기관 간부 양성기지다. 호텔, 급양, 경영, 패션 등 분야의 전문가를 양성한다.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상업대학을 졸업하면 굶는 일은 없다는 이야기가 있어 여성들이 선호하는 대학이다.

하지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서민층의 자식들은 명문대에서 버티지 못하고 중도 하차하는 경우가 많다. 매주, 매월 당국의 정책동원으로 돈을 바쳐야하는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포기하고 거주지의 대학이나 전문학교를 택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이기 때문이다.

권력을 쥐려면 종합대학에 가고, 안정적 생활을 하려면 전문대학에 가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다면 상업대학에 가라는 시대어가 생겨난 것은 '권력도 달려 앞에서는 고개를 숙인다'는 북한의 경제상황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 🎓 2005년 김일성종합대학 부정 입학 사건



▲ 김책공업대학의 아침 풍경

현재 북한에서는 고등학교에서 등수를 매겨 순위대로 추천을 받고 시험장에서 컨닝을 하면 즉시 퇴장시켜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2005년 김일성종합대학 입학시험에서 있었던 사건을 계기로 등장했다.

같은 학교에서 추천받은 2명의 학생 중 노동당 조직지도부 과장을 아빠로 둔 학생이 당선되고, 북한군 총참모부 통신국 상급참모(상좌)를 아빠로 둔 학생이 낙마한 사건 때문이었다. 피해를 본 집안에서 노동당 신소과(민원)에 시험지를 까보자는 의견을 제기했는데, 그 결과 시험점수 조작이 들롱 누 부탁한 사람과 들어준 사람, 당선된 학생까지 줄줄이 처벌을 받게 됐다. 자칫 사회적 분노로 확산될 수 있었던 큰 사건이었기에 처벌 수위가 매우 가혹했다.

대입시험은 남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북한에서 대학입학시험이라고 부른다. 남한에서는 수능일이 되면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출근시간을 한 시간 늦추는가 하면, 평양에서는 부모들이 밤새 만든 찰떡을 자녀에게 먹고 대학정문과 담장에다 붙이기도 한다. 자녀가 잘되길 바라는 것은 남북이 마찬가지다.

## 신분에 따라 달라지는 직장 배치제도

북한은 마흔하늘에서 벼락은 안쳐도 명문대 취업에서 만큼은 벼락이 친다. 모든 졸업생들은 내각 교육성 대학생배치과에서 토대(신분), 성적, 품성 별로 분류된 개인자료(대학기간 생활기록자료)에 따라 직장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이다.

최종 결론은 노동당 과학교육부가 하지만 각본은 졸업 1년 전 거의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그 와중에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해 뇌물과 목적 실현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김정은도 감히 막지 못하는 ‘핵사업’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한마디로 힘 있는 집안의 자식은 부모들이 미리 자식이 졸업 후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놓는 셈이다.

예컨대 지방이 고향인 졸업생들은 원칙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영입한 만큼 지방으로 배치되어야 정상이지만, 돈만 있으면 평양에서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해 또 다른 구멍이 생겨난다. 군이나 보위부(국정원), 보안성(경찰청) 등 특수기관 간부(인사)기관들에서는 명문대의 우수한 졸업생들을 영입할 수 있는 특혜가 있어 선호하는 배치지의 노르자가 각광을 받는다.

힘없는 졸업생들은 현장체험이라는 미명 아래 화력발전소나 도시시설관리국, 건설현장 등 “당의 지시라면 불속에라도!”라는 구호를 외치며 영광스런 직장으로 파견된다. 명문대 졸업 후에는 3년 동안 ‘3대혁명소조’라는 현장체험을 하는 등 돈 없고 권력 없는 집안에서 태어난 것이 숙명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 김형직사범대학 학생들의 자주권 수소 결의다짐 모습

## 남북 大學의 사명은 통일의 역군 인재양성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한 남북 대학생들이 제도를 넘고 분단을 넘어 하나가 되는 날은 분명 통일밖에 없다. 공부를 하다가도 불의를 보면 정의의 목소리로 사회를 각성시키고, 등록금이 모자라 알바를 하면서도 더 힘든 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내일을 보곤 한다.



▲ 북한 인민보안성 군무원집회 모습

지식보다 이상화의 일선에서 공부를 하다가도 국제사회제재에 직면하면 “나와라! 모여라!” 하는 당국의 조직적 지령으로 광장에 모여 미국과 남조선 타도를 외치는 북한 대학생들의 모습에서 부화되지 못하고 살아진 달걀 같은 처지도 보인다.

상반된 처지의 남북한 대학생들이 현실을 공유하고 장단점을 찾아, 7,500만의 가슴에 꼭 들어맞는 통일의 방법을 찾고 시대를 선도하는 역군으로 자라나 민족의 숙원을 이루는 영웅이 탄생하길 기대해본다.